

광주시립무용단 100회 공연



지난 1976년 광주시민회관. 토슈즈를 신고, 투투를 입고 추는 '발레'는 아직 광주 시민들에게는 익숙한 장르가 아니었다. 이날 무대에 올라온 광주시립무용단의 발레 '백조의 호수'는 시민들에게 색다른 경험이었다. 광주시립무용단이 100회 공연을 맞았다. 무용단은

발레 불모지인 광주에 씨를 뿌리고 싹을 틔웠다. 그나마 무가 이제 잘 지라 흥성한 그늘을 만들고 있다. 국내 직업발레단은 국립발레단, 유니버설발레단, 서울발레씨어터 등 3개에 불과하고 시도 무용단 가운데 발레단은 광주가 유일하다.



6일 광주시립무용단원들이 김유미 단장의 지도를 받으며 오는 16~18일 무대에 올릴 '호두까기 인형' 연습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

광주 넘어 한국 대표 무용단으로

1976년 창단 안무가 4명 거처가... 심청·춘향 등 작품 보유

16~18일 '호두까기 인형' 공연, 사진전 등 이벤트 진행도

▲창작발레의 보고(寶庫)

시립무용단은 지난 1976년 태동했다. 초창기에는 발레뿐 아니라 한국·현대무용도 무대에 올리는 등 다양한 작품을 공연하다 1990년부터 '발레'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무용단의 초석을 다진 이는 초대 박금자(1979~1996) 단장이었다. 이후 박경숙(1996~2002), 이영애(2003~2008), 현 김유미 단장 등 4명의 안무자는 각기 다른 개성으로 무용단을 이끌었다.

무용단이 무대에 올린 작품은 풍성하다. '지젤', '백조의 호수', '잠자는 숲속의 미녀' 등 클래식 발레 작품은 물론이고, 특히 다른 발레단과 달리 '심청', '춘향', '시집가는 날', '서동요', '명성황후' 등 다양한 소재의 한국 창작 발레를 꾸준히 제작, 차별화를 시도했다.

1982년 서울에서 '춘향전'을 무대에 올리며 중앙 무대에도 진출한 무용단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돈키호테' 전막 공연을 진행하기도 했다.

또 지난 1991년 미국 시카고에서 '심청전'을 공연한 것을 시작으로 후쿠오카(1999·돈키호테), 샌프란시스코(2003·심청), 북경과 항주(2010·명성황후) 등 해외공연도 잇따랐다.

▲또 다른 100회를 준비한다
무용단은 '광주 대표 브랜드 작품' 제작을 준비 중이다. 2011년에는 광주문화회관 20주년 기념 공연으로 '이순신'을 무대에 올리며 '실비아'와 오페라 발레 '방부운'을 공연할 예정이다.

무용단이 명실상부 광주를 넘어 한국의 대표 공연단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단원 확충이 필요하다. 현재 단원은 50명. 대형 공연 때마다 객원단원을 활용하기는 하지만 작품의 완성도를 위해서는 인원 확충이 불가피하다. 또 국립발레단처럼 스타급 무용수를 키우는 것도 필요하다.

지난해 진행했던 외국 유명 발레 마스터 초청 워크숍처럼 선진 발레 기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단원 역량 강화에 필수적이다. 또 하나, 무용단의 이름을 광주시립무용단 대

신 '정체성'을 정확히 나타내는 '광주시립발레단'으로 바꾸는 안도 적극 고려해야한다. 브랜드 네임을 중요시 하는 요즘 시대에 타 시도 무용단과 차별화된 콘텐트를 갖고 있는 광주만의 특징을 그대로 살릴 수 있는 이름이기 때문이다.

▲기념 공연 '호두까기 인형'

100회 기념 공연 작품은 연말의 대표적인 페퍼토리인 '호두까기 인형'이다.

해마다 무대에 올렸던 작품이라 기념 공연작으로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지난해 안무를 버전업하고 무대 세트와 의상 등도 대폭 교체, 새로운 무대를 만들었다. 공연은 16~18일 광주문화회관에서 열리며 16일에는 다문화 가정 등 이웃과 함께하는 무대로 꾸민다.

공연중 로비에서는 무용단의 대표 작품들을 담은 사진전을 열고, '호두까기 인형' 의상을 입은 무용수들과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도 운영한다. 티켓가격 3만원~1만원. 문의 062-510-9339.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파꽃은 바람에 흩날리고'

최향 개인전 8~14일 전주 서신갤러리

작가에게 고향은 어떤 의미일까. 화사한 파꽃의 화가 최향씨는 삶의 고비마다, 혹은 작업이 잘 되지 않을 때는 고향을 찾았다고 한다. 그렇게 찾은 한적한 들녘에서 발길을 사로잡은 건 흐드러지게 핀 파꽃이었고, 그녀의 예술 세계에도 큰 변화를 가져다줬다.

광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서양화가 최향씨가 오는 8~14일 전주 서신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연다.

고향에서 여는 첫 개인전인 이번 전시에서 그녀는 '파꽃은 바람에 흩날리고'를 주제로 꽃망울을 터뜨린 파꽃 연작을 선사한다.

일과 대를 넘겨 그려 화면에 안정감을 줬고 노랑, 보라, 파랑, 빨강 등 화려한 색상으로 강한 파꽃의 생명력을 표현했다. 아기자기하게 처리된 꽃송이의 도드라진 질감이



'파꽃은 바람에 흩날리고'

생생하고, 은박지를 구겨 붙여 놓은 듯 잔 꽃질로 오묘조밀하게 그려낸 꽃송은 입체감도 느끼게 해준다.

최씨는 홍익대 미술대학 출신으로 브라질 상파울로 예술원, 뉴욕 한국 현대미술 초대전을 가졌고 헝가리 기오르 비엔날레 한국전, 한·일국제현대미술제 등에 출품했다. 문의 063-255-1653.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인기 작가들이 고른 '올해의 책'

인기 작가들은 올해 어떤 책을 가장 감명 깊게 읽었을까. 온라인서점 예스24는 각 분야 인기 작가 29명이 추천한 '올해 읽은 책' 중 가장 좋았던 책을 6일 소개했다.

공지영, 조정래 작가는 '진보집권플랜'을 추천했다.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와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의 대담집인 '진보집권플랜'은 한국 사회와 정치 현실을 분석하면서 진보 세력이 집권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대안을 제시한 책이다.

공 작가는 "이 책의 가장 놀라운 점은 무거운 주제에도 불구하고 참 재미 있다는 것"이라고 소개했고 조 작가는 "신뢰할 수 있는 두 지성인이 이 땅의 진보의 미래에 대해 진지하고 솔직하게 펼쳐나간 심층 대담집"이라고 평가했다.

이외수 작가는 박민규의 소설집 '더블', 천명관의 소설 '고령화 가족', 박범신의 소설 '은교', 정민 한양대 교수의 '한시 미학 산책' 등 여러 권의 책을 추천했다.

이밖에도 '시골 의사' 박경철씨는 법륜 스님의 '스님의 주례사'를, 여행작가 한비야씨는 김성주 전 한겨레 논설주간의 에세이 '이별에도 예의가 필요하다'를 올해 읽은 책 중 가장 좋았던 책으로 꼽았다.

예스24는 또 국내 52개 주요 출판사 편집장 54명을 대상으로 올해 출간된 책 가운데 판매가 많이 되거나 주목을 끌지 못했지만 그냥 지나치기엔 아쉬운 책을 한 권씩 추천받아 소개했다. /연희뉴스



(재)광주문화재단 직원 공개 채용

내년 1월 출범·정책·예술 등 23명

2011년 1월 출범하는 (재)광주문화재단이 신규 직원을 공개 채용한다.

모집분야는 문화정책, 문화관광, 문화예술, 경영관리, 문화시설 운영 등이며 모집인원은 2급 2명을 포함 모두 23명이다. 시험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이뤄진다.

원서 마감은 오는 14일까지며 17일 서류전형합격자를 발표한다. 면접은 21일 진행될 예정이며 최종합격자 발표는 23일이다.

이번 신규 직원 모집에는 재단에 통합된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와 광주공연예술재단 직원들도 다수 응시하는 등 지역 문화계가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문의 062-655-267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2018년 동계올림픽 평창 유치기원

'자연사랑 그림그리기·글짓기 대회'

강원일보사와 강원도교육청이 주최하는 '제8회 자연사랑 전국 그림그리기·글짓기 대회'가 열린다. 이번 대회는 2018년 동계올림픽 평창 유치 기원을 주제로 했다. 전국의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글짓기(사·산문), 그리기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각 부문 대상 1명과, 금상 4명, 은·동상, 가작, 입선작 등을 선정해 상장과 부상을 수여한다.

글짓기는 시 1편 이상, 산문은 초등 200자 원고지 7매 안팎, 중고등부는 10매 안팎이면 가능하며 그림그리기는 초등 8월지, 중고등부는 4월지 규격이면 된다.

22일까지 공모하며 수상작은 12월 중에 강원일보 지면에 발표한다. 문의 강원일보사 문화사업국(www.kwnews.co.kr), 033-258-1250~2. /김대성기자 bigkim@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송년, 신년 모임도 아리랑 하우스 에서 모시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과 정성을 가득 담아 소중한 자리가 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인실부터 대형 연회장까지 다양한 접객실과 연회장 세미나를 위한 빈프로젝트, 음향 설비 완벽 상건례, 회합, 고회연 등 가족모임과 회식, 설명회 등 각종 모임에 더욱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금수장관광호텔 **에이** 계림동 홀플러스 건너편 **아리랑하우스** **문의** **525-2111**
www.geumssojang.com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에 위한 대소 연회장 / 광주 와인 문화 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moviehelic 영화에 빠지다 **덩거운 연인과 함께!!**

<p>상무점 향토사랑 영화시영 클롬버스시네마 하남점</p> <p>1관 렛미인(15세) / 더콘서트(전제) 2관 더콘서트(전제) / 두여자(18세) 3관 불랑남녀(15세) / 이층의악당(15세) 4관 이층의 악당(15세) 5관 언스토퍼블(12세) / 소우(18세) 6관 듀데이트(18세) 7관 스카이라인(12세) 8관 소설네트워크(15세) / 초능력자(15세) 9관 부당거래(18세) 10관 초능력자(15세)</p>	<p>1관 스카이라인(15세) 2관 이층의악당(15세) 3관 초능력자(15세) 4관 소설네트워크(15세) / 소우(18세) 5관 페스티발(18세) / 두여자(18세) 6관 렛미인(15세) / 불랑남녀(15세) 7관 언스토퍼블(12세) / 부당거래(18세) 8관 듀데이트(18세) 9관 더콘서트(전제) 10관 초능력자(15세) / 이층의악당(15세)</p>
--	--

향토사랑! 영화시영! 매일 심야시영 / 호남최대주차장 / www.cinus.co.kr
3D디지털 상영! 상무점, 하남점 동시개봉!!

MEGABOX

M관 워리어스 웨이(15세) 최고급관
2관 제대한 로맨스(18세)
3관 초능력자(15세)
4관 소설네트워크(15세) / 부당거래(18세)
5관 제대한 로맨스(18세)
6관 스위치(15세) / 라스트 엑소시즘(15세)
7관 이층의 악당(15세)
8관 스카이라인(12세)
9관 워리어스 웨이(15세)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 호남주차타워 이용시 2시간 30분 무료 (단, 영화 관람객에 한함) : 2시간 30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

CINUS

1관 이층의 악당(15세)
2관 초능력자(15세)
3관 렛미인(15세) / 페스티발(18세)
4관 소우3D(18세) / 소설네트워크(15세)
5관 부당거래(18세)
6관 듀데이트(18세)
7관 스카이라인(12세)

색깔있는 영화시영 • **www.cinus.co.kr**
씨너스전대3D(4K)상영!!